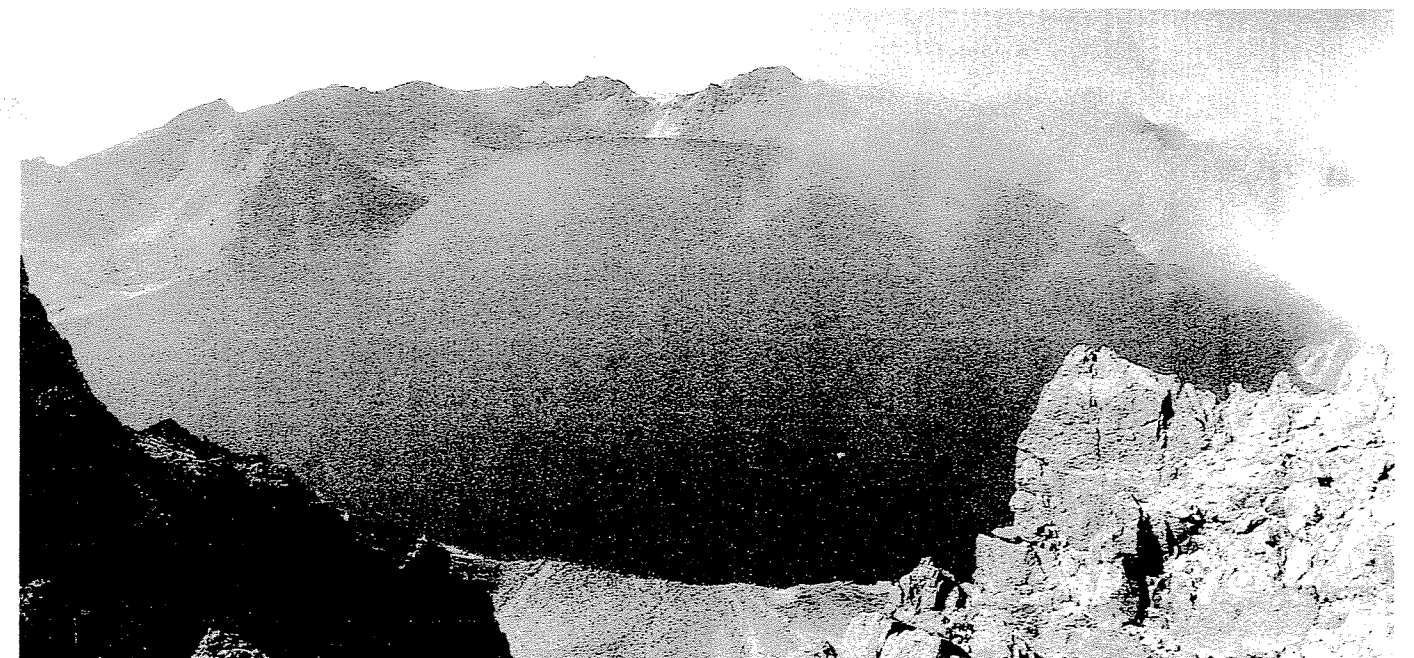


천지인문 天池人文

～我々が考え、我々が実行し、我々が支援し、我々の夢を実現する～

CHEONJI CULTURE

Vol.2 No.6 1998年10月 総第18期



天池倶楽部 発行

卷 頭 言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들의 유일한 생활잡지 《천지인문》은 이번기로 총 18기를 내게되었습니다. 인력상, 물력상관계로 아직 未備한 점도 많고 완전한 잡지형태를 가졌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일전한 쥘 외부의 원조도 없이 우리들의 두 손으로 우리자신의 생활정보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크나큰 자랑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 중국조선족들이 일본에 와서 거주한 歷史는 약 1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留學生 신분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기실 일본에서의 우리들의 생활기초는 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장의 白紙입니다. 우리들은 이 한장의 백지에 아름다운 미래의 설계도를 그리어 우리들의 꿈을 실현해야 할것입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 와서 살고있는 우리조선족들이 근 6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기초도 생활기초도 없는 우리들로 놓고보면 개개인으로서는 일본사회에서 살아나가기조차 힘겹지만 6천명이 동심협력하면 후지산이라도 옮길수 있겠지요. 우리 중국조선족들의 모임인 천지구락부도 이와같은 취지에서 고고성을 올리게 된 것이고 《천지인문》 역시 우리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탄생한 것 입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조선족들의 유일한 정보교류매체인 《천지인문》을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하여 천지구락부理事會의 동의를 거쳐 이번에 새롭게 편집부를 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편집들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천지인문》을 잘 꾸려갈것을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편집부로부터

1998年在東京朝鮮族秋遊大会開催

지난 9월 20일東京葛西臨海公園에서 在東京中國朝鮮族들의 가을공원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중국조선족출신들의 출국은 바하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대부분이 일본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 와 있는 조선족동포지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천지구락부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공원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이고 또 경험이 부족하여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가족을 동반하여 8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늘마저 우리를 도왔는지 참으로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보배찾기, 점심식사, 오락, 추첨, 등순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성진 우리들의 노래소리가 이국땅의 공원 여기저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모두들 내년의 이날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들렸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최측인 천지구락부에서도 이번모임을 계기로 앞으로 해마다 조직하여 우리조선족의 축제로 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은 윤창수씨를 비롯한 전 이사회 성원과 조춘산, 김상태씨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아래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朴 鶴 : ¥10,000.00	李東哲(吉林) : ¥10,000.00	尹昌洙 : ¥9,250.00
黃正浩 : ¥8,500.00	宋虎岩 : ¥5,000.00	金信敬 : ¥5,000.00
金万寿 : ¥5,000.00	金相太 : ¥3,000.00	林東浩 : ¥2,000.00
徐光哲 : ¥1,000.00	金炳哲 : ¥870.00	朴炳湖 : ¥500.00
	合計 : 41,250.00	

이 성금은 이번 모임의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천지구락부의 활동경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天池俱樂部事務局

天池俱樂部第二屆理事会第一會議

日期: 1998年10月3日

參加: 李東哲(吉林)、金光林、金相太、金万寿、徐光哲、朴 鶴

議題: 選舉代表理事及內部分工

結果: ·代表理事: 朴 鶴

·事務局長: 金相太

·理事: 李東哲(吉林)、金光林、金万寿、徐光哲、吳海英

《天池人文》編集委員會設立

日期: 1998年10月10日

責任編集: 李東哲(吉林)

編 集: 金光林、陳万哲

技術編集: 金炳哲、金万寿

住 所: 東京都豊島区南大塚2-41-10河野ビル3F

FAX: 03-3943-0239

交流、協力、共同発展

天池俱樂部は1995年3月25日に創立された以来、会員皆さんの熱意と努力によって皆さんの俱樂部になりました。今、天池俱樂部は第四十四回の例会、《天池人文》総第十八期の発行と第二屆理事会の構成を迎えました。ここで私は天池俱樂部第二屆理事会のメンバーを代表して会員皆さんに引き続きご協力を御願ひ致します。第一屆理事の皆さんに: ご苦勞さまでした! 天池俱樂部を引っ張っていただいて有難うございました!!

さて、中国朝鮮民族の集団、日本で生活している我々の成功する道は「交流、協力および共同発展」である事を確信しています。それを支えるのは会員の皆さんです。自分の望む人生を創り出すために同じ目標をもつ人々の協力を得ることを大切にし、その基本となるルールとネットを我々の力で創出することは大事だと思います。今年も異国の日本で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1998年10月15日 朴鶴

第44次天池倶楽部定例会
中国朝鮮族日本進出経験交流会
—回顧・総結・展望—

当代の中国朝鮮族は80年代後半から日本進出（留学・研究・就職・事業・国際結婚など）を本格的に始めて、既に10余年の歳月が流れました。この間に来日した中国朝鮮族は最低6千人以上（正確な数値は天池倶楽部が調査中）に上り、すでに帰国して国内の各分野で活躍していらっしゃる方々以外に、現在も日本在留中の中国朝鮮族は3千人程度とされています。「十年経てば山河も変わる」と言う諺のように、中国朝鮮族は日本進出を通して多くの成果を勝ち取り、朝鮮族の主体的な実力も目覚ましく向上しています。それでは、日本進出の夢・奮闘・成功・経験・教訓とは一体どんなものだったのでしょうか。そして、我々にこれからどんな可能性が生まれるのでしょうか。みんなが何時もご関心を持っているこのテーマを巡って、一度在日中国朝鮮族が一堂に集まって虚心坦懐に語り合ってみませんか。以上の様な趣旨でこの度、天池倶楽部が「中国朝鮮族日本進出経験交流会」を主催致します。交流会には天池倶楽部の会員様は勿論のこと、天池倶楽部にご関心を持っている方々、本交流会の内容に就いてご関心を持っている方は周辺の朝鮮族を誘い合って積極的にご参加ください。天池倶楽部は特定の人々の団体ではなく、すべての在日中国朝鮮族同胞達が気軽に立ち寄る「ハウス」、お互いに助け合う「共同体」を目指して現在形成されつつある団体です。日本にいらっしゃる中国朝鮮族同胞の皆様、皆の心と力を合わせて我々のこの団体を更に大きく育てて行きましょう！！

記

1. 交流会日時：1998年10月25日（日） 午後6:00～9:30
2. 場 所：東京都文京シビックセンター（文京区役所ビル）5階研修室A
3. 交流会次第：

午後6:00～6:30	天池倶楽部理事会一年間活動計画報告
午後6:30～8:00	主題発言（発言者は以下3名 注）
午後8:00～9:30	自由討論
4. 交流会担当者

金 光林（天池倶楽部文化教育担当理事）	TEL:042-389-6560
金 万寿（天池倶楽部文化教育担当理事）	TEL:042-279-3750

注：

- 金 熙徳：「中国朝鮮族日本進出の意義及び成果」、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主任研究員・韓国研究中心理事・APEC 制作研究中心秘書長（学術博士、中国延辺大学卒、米国コーネル大学・日本東京大学留学）。
- 田 景：「日・米・韓3国留学体験及び在米、在韓中国朝鮮族の活動」、明治大学文学研究科客員研究員（中国延辺大学外事処長・教授、中国北京大学卒、米国ピッツバーグ大学・韓国ソウル大学留学）。
- 金 文学：「東アジア社会における中国朝鮮族の発展可能性」、広島大学社会学研究科博士課程在学（中国朝鮮族作家・文芸評論家、海外コリアン研究会代表、中国東北師範大学卒、日・中・韓3国で著書多数出版）。

交通機関

営団地下鉄南北線	後樂園駅徒歩0分
営団地下鉄丸ノ内線	後樂園駅徒歩1分
都営地下鉄三田線	春日駅徒歩1分
J R中央線・総武線	水道橋駅徒歩8分

「天池人文」を顧みて

金 炳哲

「天池人文」が発刊されてもう1年半と言う歳月が流れました。これから、天池倶楽部及び「天池人文」の更なる発展を祈りながら「天池人文」を回顧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1997年2月、私は在日中国科学技術者連盟会員となり、溶接学会など五つの学、協会の会員をつとめる中で、その運営方式、活動に学ぶべきものが多くあることに感銘し、天池倶楽部の会則の草稿を書き上げました。そして2月22日（土）の天池倶楽部定例会で会則に就いて皆様の熱烈な議論が行われました。その後金光林さんらによって改編された会則が3月29日（土）天池倶楽部定例会にて発行されました。しかし、会員さんにお届けするための刊行物がなかったので会則を広範に発行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でした。会員さんにもっと多くの情報をお送りするための天池刊行物が必要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背景で、5月17日（土）私たち（朴鶴さん、李東哲さん、鄭傑さん）は大宮翠苑という回転レストランで一緒に食事をしながら天池倶楽部の刊行物に就いて話し合いました。0からスタートという船出ですので、雑誌形式なのか、新聞形式なのか、方針は何なのかなど未知の世界を3時間あまりも議論しました。困難ばかりを考えると一歩も進まないのです。「まず、何が出来るのかを列挙しましょう」との提案がでました。可能性のあるのを列挙しますと、まず、天池倶楽部の定例会通知の紙一枚に最新情報を伝える紙一枚を追加することでした。次に、経済性を考えて一枚の紙も5枚の紙も同じ郵便料ですから、可能な限り5枚までに追加することでした。更に、将来性を考えて、刊行物に名前を付けた方が良いと言うことで「天池人文」と言う名前を付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名前の由来は天池人つまりコリアン（長白山天池の神水を飲んだ人の後裔だそうです）の文化を高揚しましょうの略です。5月、待望の「天池人文」の創刊号が発行されました。議論は長かったけど、結論に至るまでは早かった覚えがあります。そのとき、「何が出来る」と言う思考方法が物事を促進するためにいかに有用なのか身を以て体験しました。

天池倶楽部は非営利的団体ですので、会員様に「天池人文」をお届けするための郵送料についてかなり神経をとがらせた思いがあります。また、純粋なボランティアで継続的に編集仕事に従事することにも限界があると思います。たとえば、私も最初は熱狂になり、毎回、原稿を頼み、各理事にFAXで意見を聞いたりしましたが、ボランティア的仕事だというイメージのせいで、つい、自分の本業が忙しくなると（社内主任としての自覚と協会の主査としての責任で自分の専攻以外のボランティア活動に従事することは困難）、「天池人文」をさぼり、金万寿様、尹昌洙様などに無理にお願いし、ご迷惑をお掛けしました。このことで本当に申し訳なく思う次第です。今になって、専攻の壁と個人能力の限界を悟り、専門の方に「天池人文」の編集をお願いし、純粋なボランティア的活動を半分ボランティア的に進めた方が「天池人文」を更に発展させるのにふさわしいと思う次第です。これからの「天池人文」のあり方について、1998年10月10日（土）、李東哲ら8人が集まって論議しました。そのとき、概ね2通りの案が話題になりました。一つ目は、今までのやり方でもっと情報を載せることで、実現性があることと、二つ目は、法人化し、雑誌として営利目的に発展させることです。これは将来性があることですが、今の天池倶楽部の力では実現しがたいようです。

今後「天池人文」がどのような方向に発展するか楽しみにしながら本文を終わらせて頂きます。

天池倶楽部の活動に対する若干の提案

金 炳哲

天池倶楽部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有意義な活動展開を提案します。この活動は各々の興味を持つ人たちが天池倶楽部の例会において一堂に集まる機会で行う予定です。詳細は別途打ち合わせで決めますが、一つの案として下記グループ活動を計画しています。

記

1. 天池科学技術グループ
- メンバー：金 炳哲 工学博士 就職3年
- 金 万寿 工学修士課程 就職6年
- 宋 虎岩 工学修士 就職6年
- 李 東偉 工学博士 就職1年
- 朴 鶴 博士後期課程 就職 2年
- 朴 炳湖 博士後期課程2年
- 徐 光哲 博士前期課程1年
2. 天池サッカーグループ
- メンバー：鄭 傑 博士後期課程1年 元沈陽軍区キーパー

以上

天池倶楽部からのお願い

当倶楽部は中国朝鮮族の交流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非営利的組織です。交流、協力及び共同発展をモットーに共に活動して行きたいと思います。活動は会員の皆さんの会費と寄付金により運営されており、毎月最後の日曜日の午後、文京区役所で定例会を行います。また、会員様に「天池人文」をお届けします。今後とも暖かいご支援を賜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年度会費
正会員 3,000 円
学生会員 1,000 円
振込先：東京三菱銀行 小飯田橋支店
テンチクラブ インショウシュ サマ
0005-071-0228416

連絡先：〒133-0057 東京都江戸川区西小岩 4-3-1-303
TEL:03-5668-4751
FAX:03-5668-4750
天池倶楽部 事務局 尹 昌洙

[일본속의 중국 조선족 군상-재일 중국 조선족의 자백]

원고 청탁서

현재 일본속에는 6천여명의 중국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역사상 전례 없는 일본 진출의 “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학, 취학과 취직, 결혼의 길에서 이문화의 체험을 쌓으면서 분발하고 계실 뿐만아니라 학계, 비즈니스, 매스컴, 연예계 등 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에서의 조선족의 분투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재일 중국 조선족의 활약상을 중국 동포들에게 알리며, 중국과 일본 양국의 친선 교류와 이해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이번 흑룡조선민족출판사와의 계약으로 우리는 “일본속의 중국 조선족 군상-재일 중국 조선족의 자백”을 편집,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특히 원고 청탁을 드리오니, 부디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좋은 글들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역사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쾌거에 당신의 발자취를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집필 요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집필 요항

*집필 취지: 국내 조선족 독자들에게 일본에서의 생활상을 알리고 일본에서의 이문화체험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집필 요구: (1) 제1인칭, 진짜 인물과 사실, 진지한 감정과 개성특색
(2) 6000자안팎
(3) 저자약력(600자안) 및 사진 1매
(4) 집필 언어: 조선어 (부득이한 경우 중국어도 가능)

*마감 기일: 1998년 12월 30일

*원고 보낼곳: 〒730-0011 広島市中区基町 18-1-2062

海外KOREAN研究会 代表 金 文学

TEL兼FAX: (082) 223-2698



원고를 모집합니다

征稿启事

우리자신의 힘으로 《천지인문》을 잘 꾸려나가려면 회원 여러분들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원고를 막론하고 우리 천지구락부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모두 접수합니다. 시, 소설, 산문 등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교류에 관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망치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망치 들고나오고 호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호미를 들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언어도 조선어, 한어, 일본어 自由自在입니다. 다른 회원들과의 정보교류를 원하시는 분들도 《천지인문》을 충분히 利用하기를 바랍니다. 잠시적으로 원고비는 지불해드리지 못합니다만 掲載되는 원고는 일본에 살고있는 우리중국조선족들의 歷史의 한페이지로 영원히 남게될 것입니다.

원고에 관한 문의, 상담은 《천지인문》편집위원회로 聯絡주십시오.

李東哲 144-0047 東京都大田区萩中3-29-4-401 電話 (fax) 03-3741-4926

金丙哲 124-0025 東京都葛飾区西新小岩4-39-5-107 電話 (fax)

03-5670-5759